

우리나라 육군 병사들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

A Survey of the Reading Habits of Soldiers in the Korean Armed Forces

차 미 경(Mikyeong Cha)**

송 승 섭(Sung-Seob Song)***

목 차

- | | |
|----------------|----------------------|
| 1. 서론 | 3. 조사 결과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 3.1 독서실태 |
| 1.2 연구의 목적 | 3.2 독서 경향 및 도서 입수 방법 |
|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3 독서 의식과 독서 환경 |
| 1.4 선행 연구 | 3.4 병영도서관 이용현황과 발전방안 |
| 2. 조사 대상자 현황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병사들의 독서요구를 반영하는 병영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수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2개 사단의 육군 병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독서실태 설문 조사와 병영도서관 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이 포함되었으며, 병사들의 독서량과 독서방법 및 경향, 도서입수경로, 독서 의식과 환경 등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장서의 다양화와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신간 확보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 및 제도적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for user based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military library. A questionnaire survey of 1,000 soldiers of armed forces selected from two military divisions was conducted. The survey results show the needs for the sufficient collections with diverse subject areas, current materials, and periodicals, and also suggestion of the programs for encouraging soldiers to read.

키워드: 병영도서관, 병영도서관 장서, 병사 독서실태

Military Library, Army Library, Military Library Collection, Soldiers' Reading Habits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a@ewha.ac.kr)

***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선임연구위원(libsong@unikorea.go.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9월 12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주변 국가와의 대립 등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이류로 인해 60만 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2년 이상 군에서 의무 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지적 호기심과 자기개발욕구로 충만한 이들 젊은 사병들을 군 전력강화와 국가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군 사병에 대한 독서 지원을 목적으로 군 부대에 책보내기 운동, 군부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 등이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2003년 5월에는 병영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령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전국에 30여개의 병영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국방부는 2005년부터 '병영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대급 이상 통합막사 개선 사업을 통해 매년 병영도서관 시설을 80개에서 100여개 부대에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사병들의 독서를 통한 교육 증진과 사기 고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군대의 사회적 특수성과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군 관련 연구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군 사병들의 독서 생활과 병영문화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여 병영도서관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다.

병영도서관이 병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

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병영도서관 설립을 위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개발, 장서선정과 관리, 인력문제 등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군부대 장병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지원을 위한 연구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부대 병사들의 독서 현황과 요구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군부대의 실정에 맞는 장서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부대내의 독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의 독서 요구를 파악하여 병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병영도서관 장서 선정 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병사들의 독서 생활과 독서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병영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병영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서와 예산 등 제반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군부대의 체계적인 독서와 이를 위한 병영도서관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군 장병 가운데 육군 사병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1월 27일에 시작한 설문 조사는 군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어 2006년 3월 4일에 끝마칠 수 있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병사들의 독서량과 독서 경향, 도서입수형태, 인터넷 서비스, 독서생활 의식, 독서환경 및 독서진흥방안 등 종합적인 독서 관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의 대상으로 육군 사병을 택한 이유는 군부대의 성격 상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육군 사병이 전 군에서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육군은 전체 군 전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육군의 사병은 육군에서도 80% 이상을 차지하며, 전 군의 인력현황에서 보더라도 50 만에 육박하며, 전체 군 구성비로 보더라도 70%에 가까운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집단은 전군 가운데 육군 이병 이상 육군 사병 남자로 하였다. 조사 규모는 1,000 명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2005년 국방백서」, 「국방통계연보 2005」에 의한 전국(제주도 제외) 육군 사병 47만여 명 중 0.21%에 해당한다. 설문지 배포를 위하여 국방부와 육군 등 관련 기관과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의 협조를 얻어 병영도서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A사단과 B사단 등 2개 사단을 선정하여 각 사단에 500부를 우편 발송하여 총 99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전체 설문문항 30개 중 응답률이 50% 이하가 되는 설문지와 바로 앞 설문지와 동일한 응답이 90% 이상 반복되는 경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973명의 설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2004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이에 병영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보완한 후, 2006년 1월 9일~2006년 1월 11일의 기간 동안 최근 1-2달 사이에 군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 2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및 보충 과정을 거쳤다.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병영도서관 가운데 1곳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1.4 선행연구

지금까지 독서 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 지도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연구의 대상도 성인층으로 확대되고, 분야도 인터넷을 이용한 독서형태, 독서프로그램 개발방안, 독서환경개선 문제, 자료선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1993년 '책의 해'를 계기로 국민 독서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의뢰하여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국민 독서환경의 변화추이 및 독서생활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해오고 있다. 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분석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예, 이용훈 2003, 백원근 2005,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편집부 2005 등).

그러나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군부대 관련 부서의 근무자가 장병들의 독서습관을 강조하고 신세대 사병의 가치관이나 정신 전력을 국방전력과 연계시킨 논문과 복지차원에서 독서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 정도가 있을 뿐이다(온만금 2004, 제정관 2004, 이정수 1965). 송승섭(2004)의 연구처럼 병사들의 독서운동 방향이나 군부대 병

사들을 위한 독서 상품권 지원 방안 등 정책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연구도 있으나 과학적인 연구 설계에 의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조동성(2004, 27-8)은 군부대에 병영도서관을 건립하고 적극적으로 독서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군인이 책을 읽으면 군사력이 증가한다. 인해전술로 전쟁에서 승리하던 시대는 지났다. 첨단 무기들이 도입되면서 신체단련을 통한 군사력 증진 외에도, 앞으로의 시대는 급박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군인들의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다는 것이 전쟁에의 생명보증 수포가 될 수 없듯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이고 독서력이 이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둘째, 군인이 책을 읽으면 개인도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군인이 책을 읽으면 군사력의 내실이 생길 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2년(육군기준)의 군복무 기간을 마치고 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 경제 주체이다. 판단력과 사고력의 증진은 비단 전시상황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급변하는 시대,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은 보다 자신감 있게 그들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이끌 것이다.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군 생활 동안 독서를 통해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듯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셋째, 책을 통해 전인교육이 가능하다. 군대에서 독서를 통해 '지'와 '덕'을 함께 키운다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우리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만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는 사회, 지덕체가 고무 조화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병영 독서운동이고, 독서가 군부대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배경인 것이다.

병영도서관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병사들의 독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병사들의 독서 실태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2. 조사 대상자 현황

설문 조사 응답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모두 남자이며, 참여병사의 계급은 이병 175명(17.5%), 일병 310명(31.0%), 상병 320명(32.0%), 병장 195명(19.5%)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자들 대부분의 학력은 전체 응답자의 82%(826명)가 대학교 재학이상이었다(표 1 참조).

3. 조사 결과 분석

3.1 독서실태

3.1.1 월간 독서량과 연간 독서량

병사들의 월 평균 독서량은 도서 3권, 만화 0.4권, 잡지 1.1권으로 나타났다. 이 월간 독서량을 연간 독서량으로 환산하면 육군 병사들은 1년에 36권의 도서와 13권의 만화, 5권의 잡지를 읽는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1〉 응답자 배경

단위: 명(%)

응답자 배경		응답자 수(비율)
계급별	이병	168(17.3)
	일병	308(31.7)
	상병	304(31.2)
	병장	193(19.8)
	하사	0(0.0)
학력별	중졸 이하	4(0.4)
	고졸·퇴	166(17.1)
	대재 이상	803(82.5)
합계		973(100)

〈표 2〉 병사 1인당 월 평균 독서량

	응답자수	월 평균 독서량
도서	963명	3.060권
만화	862명	0.448권
잡지	893명	1.097권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독서실태(한국출판연구원 2004) 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일반 성인의 경우, 연평균 11권이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다소 많아 한 학기 19.4권, 중학생은 9.5권, 고등학생은 6.3권으로 보고 된 바 있다. 군부대 병사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군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오락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환경이 오히려 독서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연평균 독서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개인 면담을 통한 조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자료로는 문제가 있었다.

병사들의 신문, 책, 만화, 잡지 등의 독서 시간은 〈표 3〉과 같다. 신문은 90% 이상의 병사가 보지 않거나 30분미만의 시간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읽기의 경우,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있으나 과반수 정도가 1시간 이상의 시간

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2시간 이상을 독서하는 병사도 21.0%에 달하고 있었다. 일반도서 외에 만화는 평일과 주말에 10% 미만에서 30분 이내가 대체적인 경향이었고, 잡지는 평일과 주말에 20% 수준에서 30분 이내가 대부분이었다.

3.1.2 여가시간 활용도

군 병사들의 여가시간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TV시청이 6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책읽기 47.7%, 수면/휴식 38.5%, 체력단련 및 각종운동 31.4%, 동료 및 선·후배와의 대화 28.4%, 음악 감상 23.9%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11.4%)과 컴퓨터 게임(10.3%)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전체 병사들의 여가활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았다. 특히 책과 신문, 잡지와 만화책읽기 등 독서관

〈표 3〉 독서 시간

단위 : (%)

이용 시간	신문 읽기		책 읽기		만화 읽기		잡지 읽기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안본다/안한다	455(48.1)	500(53.0)	199(20.9)	166(17.5)	826(87.8)	817(86.9)	649(68.8)	616(65.3)
30분 미만	434(45.9)	357(37.8)	275(28.9)	183(19.3)	57(6.1)	57(6.1)	200(21.2)	192(20.4)
30분~1시간 미만	41(4.3)	61(65.0)	230(24.2)	182(19.2)	24(2.6)	30(3.2)	63(6.5)	79(8.4)
1~2시간 미만	5(0.5)	13(1.4)	157(16.5)	217(22.9)	21(2.2)	18(1.9)	22(2.3)	40(4.2)
2~3시간 미만	5(0.5)	7(0.7)	57(6.0)	118(12.4)	10(1.1)	11(1.2)	9(1.0)	7(0.7)
3~4시간 미만	3(0.3)	3(0.3)	10(1.1)	45(4.7)	1(0.1)	4(0.4)	0(0.0)	5(0.5)
4~5시간 미만	1(0.1)	1(0.1)	15(1.6)	21(2.2)	1(0.1)	3(0.2)	0(0.0)	2(0.2)
5시간 이상	1(0.1)	2(0.2)	7(0.7)	16(1.7)	0(0.0)	1(0.1)	0(0.0)	2(0.2)
합계	945(100)	944(100)	948(100)	941(100)	940(100)	940(100)	942(100)	943(100)

〈표 4〉 여가시간 활용*

여가시간 활용 활동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TV시청	638	65.7
책 읽기	463	47.7
수면/휴식	374	38.5
체력단련/각종운동	305	31.4
동기, 선후배병과 대화	276	28.4
음악감상	232	23.9
인터넷하기	111	11.4
신문/잡지읽기	109	11.2
컴퓨터게임하기	100	10.3
바둑/장기	60	6.2
종교활동	54	5.6
비디오시청	47	4.8
만화책읽기	42	4.3
라디오듣기	23	2.4
기타	74	7.6
합계	973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련 활동을 통합하면, 전체 63.2%에 달해 대부분의 병사들의 여가활동은 TV시청과 독서활동, 휴식과 각종운동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성인이 여가활동도가 TV시청 19.8%, 독서 5.9%, 인터넷 사용 10.9%인데 비하여 군부대 병사들의 TV시청과 독서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3.1.3 주5일제 근무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5일 근무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들에게도 휴무일과 휴무시간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휴무시간이 독서 시간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본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 5일 근무제”가 독서시간 증가(72.4%)

〈표 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독서시간 변화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감소	15	1.5
다소 감소	7	0.7
별 변화가 없음	247	25.4
다소 증가	498	51.3
매우 증가	205	21.1
합계	972	100.0

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인 영향(2.2%)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휴무 확대에 따라 늘어난 독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 조성, 자료 지원 등 관련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군부대 내에 '중대별 PC방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군부대에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 '중대 인터넷PC방 설치계획'은 장병 복지향상 및 일반 사회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대급 부대에 인터넷PC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04년~'08년 5년간 전군 6,842 개소에 양방향 위성인터넷 및 중대 당 PC 16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군인공제회 『지식복지시스템』 이용하고 PC확보는 위분품과 임차만료 PC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병영도서관 홈페이지가 내부 인트라넷으로 구성되어 있어 웹 인터페이스로 제공된다. 이러한 병영도서관 홈페이지나 인터넷 망을 이용한 군부대의 도서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병영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전자도서관의 도서/자료검색 등)를 이용해 본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57.5%의 병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서/자료검색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병영도서관의 전자

서비스의 활용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 구입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지 자료구입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 참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국민독서실태의 경우, 성인의 26.2%가 인터넷 서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간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군부대에서 보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병사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군 복지사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병사들이 직접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3.1.4 인터넷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

군부대 내에서 인터넷 이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감소했다 2.4%, 다소 감소했다 4.5%, 별 변화가 없다 78.7%, 다소 증가했다 9.8%, 매우 증가했다 4.8%로 나타나, 인터넷이 독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6.8%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군부대의 PC 및 인터넷 보급률이 대단히 미약한 관계로 아직은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이 어렵다는 군부대의 일반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터넷 이용이 전체 10%이내의 병사들이

〈표 6〉 인터넷 이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감소	23	2.4
다소 감소	43	4.5
별 변화가 없음	761	78.7
다소 증가	93	9.6
매우 증가	46	4.8
합계	966	100.0

주중이나 주말에서 30분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독서 경향 및 도서입수 방법

3.2.1 독서분야 및 작가선호도

육군 병사들이 선호하는 독서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 25가지의 주제 문항을 제시하고 즐겨 보는 도서 분야에 대한 복수응답을 3순위까지 집계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63.1%의 병사들과 45.2%의 병사들이 일반소설과 환타지 소설을 선호함으로써 군부대에서 가장 환영 받는 도서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예·오락 분야(29.9%), 스포츠 분야(15.7%)등 역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어학, 경제·경영, 역사·지리 분야 서적들도 종합하면 36.9%에 달하며, 취업이나 입시 대비 독서도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사들의 학습 관련 독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군 병사들이 선호하는 국내작가로는 이문열, '김진명', '이우혁', '김하인', '귀여니', '이외수', '박완서', '김훈', '박경리', '공지영', '류시화' 등으로 대부분이 소설가였다. 또한 법정(13

명), '이현세(13명)', '신순범(11명)', '이영도(11명)', '한비야(11명)', '최천득(10명)', 김정현(8명), '최인호(8명)', '양귀자(7명)', '이미나(7명)' 등도 포함되었다. 이는 2004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성인 대상)의 '이문열', '박경리', '박완서', '이외수', '조정래', '최인호', '공지영', '김홍신', '황석영', '김진명', '신경숙', '한수산'으로 이어지는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4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여성 작가의 선호 순위가 높게 조사된데 반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선호하는 여성 작가의 순위가 낮거나, 선호하는 작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국외 작가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파울로 코엘료', '무라카미 하루키', '덴 브라운', '톨스토이', '에쿠니 가오리', '조앤 K. 롤링', '츠지 히토나리', '무라카미 류', '쟁텍 쥐베리', '시드니 셀던', '요시모토 바나나', '헤밍웨이', '로빈 쿡', '스펜서 존슨', '코난 도일', '스펜서 존슨', '셰익스피어', '카타야마 쿄이치'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군 장병들이 다양한 작가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 독서실태조사(성인 대상)에서 성인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국외 작가로 조사된 '베르나르 베르베르', '시드니 셀던', '톨스토이',

〈표 7〉 즐겨보는 도서 분야*

즐겨보는 도서 분야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일반소설	614	63.3
무협지, 환타지소설, 추리소설	440	45.4
연예, 오락	291	30.0
스포츠	153	15.8
취미	149	15.4
만화	117	12.1
수필, 명상	110	11.3
컴퓨터	103	10.6
어학	98	10.1
경제, 경영	86	8.9
역사, 지리	72	7.4
취업대비	64	6.6
시	60	6.2
여행	59	6.1
수기, 전기	57	5.9
철학, 종교	56	5.8
과학, 기술	52	5.4
다큐멘터리	48	4.9
예술	46	4.7
재테크, 부동산	41	4.2
건강	34	3.5
입시대비	29	3.0
종교	29	3.0
군부대 교육훈련	16	1.6
법, 정치	12	1.2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33	3.4
기타	14	1.4
합 계	970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필 빅’, ‘시편서 존슨’, ‘파울로 코엘료’, ‘넌 브라운’, ‘무라카미 하루키’, ‘생텍쥐베리’, ‘스티븐 킹’, ‘헤르만 헤세’, ‘헤밍웨이’ 등이 다수 순위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우선순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3.2.2 도서선정 및 입수 형태

병사들은 도서를 입수하는 방법으로는 휴가나 외박 때 서점에서 직접 살펴보고 고르는 경

우가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는 경우가 41.0%, 군부대 동료 및 선·후배의 추천을 받아서가 34.4%, 각종 추천이나 선정도서 목록을 보는 경우가 25.4%, 신문잡지의 책 소개를 참고해서 24.8%, 인터넷의 정보/도서 소개를 보는 경우가 21.2%, 서점의 추천으로가 15.1%였다. 이 밖에 10% 내에서 가족의 추천이나 TV/라디오의 책 소개, 신문잡지의 책 소개가 정보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병사들에게 도서입수 과정에서 서점에 직접 가서 보는 책들과 베스트셀러 목록이 주요 정보원이 되고 있고, 부가적으로는 동료나 선·후배, 가족의 추천, 인터넷과 메스컴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책 구입 조건으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문학도서는 베스트셀러 순위, 교양도서와 실용·취미도서는 주변 사람의 추천이나 화제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이 군부대 병사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서점에 직접가거나 베스트셀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외출이 쉽지 않은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독서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도서 정보원 확보를 위해서는 독서클럽 운영 등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독서관련 활동이 군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의 도서 입수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병영 도서관 이용이 57.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무반 비치 도서 이용이 52.1%, 내무반 동료에게 빌려서 이용하는 경우가 31.8%로, 내무반을 중심으로 한 자료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과, 병영도서관의 존재의의가 군부대 내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밖에 직접구입은 29.7%, 가족이나 친구가 제공하는 경우도 15.6%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구입비 지원이나 외부지원의 필요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국민독서실태조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직접 구입해서 보는 경우가 37.1%, 주위사람이나 도서관이용이 33.7%로, 직접 구입이 어려운 군부대의 특성상, 도서관이나 내무반 비치 도서 이용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과반수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난 잡지는 내무반 동료에게서 빌려보거나 내무반에 비치된 잡지를 보는 경우가 6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병영도서관이나 가족 및 친구가 제공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영도서관의 잡지 비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부 지원도 도서 위주로 편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표 8> 도서 입수 경로*

도서입수경로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병영도서관(부대 내 도서관)	550	57.5
내무반 비치서	498	52.1
내무반 동료	304	31.8
직접 구입(서점, 인터넷 주문 포함)	289	30.5
가족이나 친구	152	15.9
책을 전혀 읽지 않음	82	8.6
기타	5	0.5
합계	973	100.0

* 복수응답 2순위까지

27%나 되어 잡지 이용률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거 도서지원 위주에서 이제 잡지 등 병사들의 다양한 독서 욕구가 반영된 균형 있는 장서지원이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병사들의 1인당 한 달 평균 도서구입비는 7,479원이며, 잡지구입비는 3,417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병사 1인당 월 10,000 원 정도를 도서 및 잡지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0원 정도의 지출은 병사들의 월급 수준(지난해 46,000원에서 금년 65,000원으로 인상: 상병기준)을 감안할 때, 봉급의 1/6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이다. 국민독서실태조사의 경우, 성인의 월평균 도서구입비 8,800원, 잡지 1,600원으로 병사들의 도서구입비 지출과 10,000원 내외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오락거리가 부족한 군의 현실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병사들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3 독서 생활의식과 독서환경

3.3.1 독서 목적 및 주요 독서 장소

병사들의 독서 목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병사들의 독서 목적 가운데 새로운 지식/정보를 위하여(73.3%)와 교양을 쌓고 인격형성을 위해서(60.1%)가 가장 많았다. 인격형성이라는 고전적인 독서 목적보다는 지식 정보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가 앞서 있었다. 다음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35.8%이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31.5%에 달했다. 독서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라는 응답도 30.0%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군대가 평생 학습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표 9> 독서 목적*

독서목적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하여	708	73.3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581	60.1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348	36.0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04	31.5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290	30.0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194	20.1
제대 후 취직을 위해서	170	17.6
제대 후 복학 준비를 위해서	151	15.6
제대 후 입시준비를 위해	42	4.3
부대 내 직무상 필요해서	22	2.3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36	3.7
기타	6	0.6
합계	973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가 19.9%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제대 후 취직(17.5%) 및 복학 준비(15.5%)를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33%에 달해 군대에서의 독서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사들의 독서 장소는 대부분 내무반(64.9%)이었으며, 병영도서관은 13.5%로 일상적인 독서 장소로서 병영도서관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반이나 병영도서관, 기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읽는 병사는 18.5%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활한 독서활동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생활공간인 내무반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 병영도서관이 상당부분 대출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병영도서관은 병영도서관대로 운영하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급문고처럼 내무반 비치도서를 늘리는 것도 병사들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3.2 독서 장애요인

병사들이 독서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과반수(48.1%)에 달하는 많은 병사들은 다른 여가 활동으로 바빠서라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와 연결되는 답변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3.1%에 달했다. 다음 30% 수준에서 읽을 만한 책이 없다,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TV/비디오 보느라 여유가 없다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구조적인 이유로서 책을 구할만한 곳이 없다 22.4%,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대답도 14.4%로 일부분을 차지했다. 시간 부족이라는 개인적 요소와 군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읽을 만한 책을 지원하고, 독서지도를 실시하며, 책 습득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고 다양한 독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독서 장애요인*

장애 요인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쁘다	434	48.1
시간의 여유가 없다	389	43.1
읽을 만한 책이 없다	319	35.3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313	34.7
TV/비디오 보느라 시간이 없다	311	34.4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	304	33.7
책을 구해볼 만한 곳이 없다	202	22.4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다	130	14.4
책을 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98	10.9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49	5.4
기타	38	4.2
합계	973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3.3.3 독서에 관한 부대원들 간의 대화

부대원들 간의 책에 관한 대화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하지 않는다가 13.7%, 별로 하지 않는다는 35.9%로 부정적인 답변이 49.6%에 달해 군부대 실생활 중에 독서가 대화의 화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주하는 편이다 9.0%, 매우 자주한다는 1.7%로 10% 내외의 소수층이지만 독서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일부 계층도 형성되어 있어, 일부이긴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도 독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이다로 대답한 병사들도 39.7%에 달해 군부대 환경 변화나 여건 발전에 따라서는 부대원들 사이에 미치는 독서관련 대화도 늘어나고 독서가 군부대의 실생활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3.3.4 독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일상 대화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독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병사는 10.2%에 미친 반면, 전체 57.0%의 병사들이 독서가 군부대 생활이나 제대 후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표 12 참조).

3.3.5 독서 장려방안

병사들은 군부대내 독서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병영도서관과 장서의 확충을 가장 많이 들었다(표 13 참조). 다음으로 도서상품권을 면세품과 같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세 번째는 도서 및 잡지 구입을 위한 국방부의 예산 확대를 들었다. 다음, 군부대 내에서의 독서교육 활성화가 있었고, 유명저자 초청강연회, 사인회 등 독서관련 프

<표 11> 부대원들 간에 책에 관한 대화 정도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전혀 안 한다	133	13.7
별로 하지 않는다	348	35.9
보통이다	385	39.7
자주 하는 편이다	87	9.0
매우 자주 한다	16	1.7
합계	969	100.0

<표 12> 독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9	3.0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70	7.2
보통이다	319	32.9
비교적 영향을 미친다.	374	38.6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78	18.4
합계	970	100.0

〈표 13〉 독서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독서 장려를 위한 역점사항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병영도서관 확충과 장서 확충	815	85.2
저렴한 도서상품권 구입과 같은 경제적 지원	592	67.9
도서 및 잡지 구입을 위한 국방부 예산확대	510	53.3
독서교육의 활성화	457	47.8
독서관련 프로그램 지원	213	22.3
사서직원 등 도서관 및 독서 전문가 배치	159	16.6
기타	49	5.1
합계	973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로그랩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47.1%에 달하는 많은 병사들은 독서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밖에 활동으로는 독서 토론회 11.5%, 독서퀴즈/경진대회 9.7%, 독후감 쓰기 8.4%, 저자강연회 7.5%, 독서 강연회 4.7% 등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은 군부대의 장소 제공 및 시간배정만 허용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 지휘관의 관심이 요망된다. 독서토론회 같은 것도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독후감 쓰기도 별도의 행사를 이벤트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독서 동아리 활동의 연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라고 생각된다.

병사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병영도서관 진흥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부대 관계자나 정부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설문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도서관 내 장서 보유량 확대와 다양한 종류의 도서 확충(약 25%)’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장서의 확충이 병영도서관 내에

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병사들이 전공서적, 영어, 여행, 음식, 학습, 자격증 취미 등에 관련된 장서의 확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병사들은 도서를 선택할 때 ‘병사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장서 선택을 바라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한 ‘잡지와 신문의 구독을 원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병사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증가’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병사들은 ‘일과 시간에 독서 시간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독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병사들은 ‘컴퓨터, PC 설치, 인터넷 사용 가능/속도 향상(약 10%)’과 같은 정보화 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계급과 관계없는 도서관 이용 보장’, ‘도서관 공간 문제 해결’, ‘독서 교육 강화’, ‘도서 대여기간 연장’, ‘전문적인 도서 관리 전담병의 증가’, ‘서가에 도서를 잘 정리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4 병영도서관 이용현황과 발전방안

3.4.1 병영도서관 이용목적과 이용만족도

육군 병사들의 병영도서관 이용경험은 부대 내 병영도서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2개 사단은 병영도서관이 있는 사단으로 고려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병사 중 77.1%가 병영도서관의 이용경험이 있었다. 이는 부대별 병영도서관 현황과 사단장의 의지, 홍보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일단 사병 개개인의 병영도서관 이용경험이 70%가 넘는다는 것은 향후 독서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병사들의 병영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73.0%에 해당하는 많은 병사들이 책의 열람과 대출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자료조사를

위한 병영도서관 이용은 11.9%가 있었고, 개인 공부를 위한 좌석 이용도 8.9%나 되어 일부 병사들은 개인 학습을 위한 장소로도 병영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부대 교육훈련과 관련된 참고서적을 보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0.8%에 그쳐 군부대의 교육 및 훈련과 독서 및 도서관 이용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병영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불만 5.2%, 대체로 불만 10.8%, 보통 42.6%, 대체로 만족 32.6%, 매우만족 8.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 병사(41.3%)들이 불만족을 나타낸 병사(16.0%)들 보다 많아 대부분의 병사들이 병영도서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병영도서관 이용목적

병영도서관 이용목적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책 열람 및 대출	542	73.0
자료조사	88	11.9
개인공부 등을 위한 장소 이용	66	8.9
군부대 교육훈련관련 참고	6	0.8
기타	40	5.4
합계	742	100.0

<표 15> 병영도서관 이용 만족도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매우 불만	39	5.2
대체로 불만	81	10.8
보통	319	42.6
대체로 만족	244	32.6
매우 만족	65	8.7
합계	748	100.0

많은 병사들이 병영도서관을 긍정적으로 평가(41.3%)한 이유로는 '개인학습공간제공', '다양한 도서의 종류 및 양', '도서 대출 가능', '인터넷 사용 가능'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불만을 나타낸 병사들(16.0%)은 '도서의 다양성 부족', 'PC수의 부족', '인터넷의 느린 속도', '도서 정리 상태 불량', '짧은 열람시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도서의 다양성' 응답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는 군부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상대적 만족감을 평가한 것인 만큼 병영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병사들이 병영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은 다음과 같다. 병영도서관 이용자 중 49.6%의 병사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경험자 중에서 병사 개개인이 연간 약 24.4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병사 1인이 월 평균 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

용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4.2 병영도서관 이용의 장애요인과 발전방안

병영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 16>과 같다. 교육훈련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29.3%)와 내부반에서 너무 멀다(27.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영도서관의 접근성 문제인데, 가능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대 중심에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읽을 만한 책이 없다(19.9%),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11.1%), 개관시간이 짧다(10.3%), 독서상담이나 안내자가 없다(8.4%) 등도 많은 병사들이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풍부한 장서지원이 되지 않아 읽을거리가 없다는 것인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도서구입비 증액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표 16> 병영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교육훈련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293	29.3
내부반에서 멀다	271	27.1
읽을 만한 책이 없다	199	19.9
도서관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111	11.1
개관시간이 짧다	103	10.3
독서상담/안내가 없다	84	8.4
이용절차가 까다롭다	82	8.2
항상 만원으로 좌석이 없다	67	6.7
도서 대출이 안 된다	44	4.4
기타	67	1.3
합계	958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또한 독서지도와 함께 도서관 이용 홍보 그리고 교육과 상담이 군부대에서도 필요하며, 평일 개관시간 연장이 어렵다면 주5일 근무제인 만큼 휴일 개관시간 확대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대출은 가급적 제한하지 말아 병영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쉽게 독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용절차도 전자화 시스템 또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단순화하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병사들이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병영도서관에 대한 진흥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병영도서관이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서 보유량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병영도서관의 양적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서비스 인력사서 등 확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요구되었다.

병영도서관 발전은 우선적인 장서 확보에 달렸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서비스의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군부대의 단순성과 실용성에 기인해서인지 아직은 좀 더 수준 높은 정보 봉사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았다. 그 결과 우수한 서비스 인력에 대한 배치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4. 결론 및 제언

병사들은 병영도서관과 독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병영도서관 장서의 질적 양적인 확충을 기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병사들의 독서 활동 나아가서 병영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학류 중심에서 벗어나 취미뿐만 아니라 제대 후 취업이나 교육을 위한 서적들, 예를 들어 전공서적, 영어, 학습,

<표 17> 병영도서관에 꼭 필요한 요소*

병영도서관에 꼭 필요한 요소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장서 보유량 확충	709	74.0
정보화(전자도서관) 수준향상	562	58.7
병영도서관 설립의 양적 확대	456	47.6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365	38.1
도서관 시설개선	352	36.7
우수한 서비스 인력(사서 등) 확보	308	32.2
기타	58	6.1
합계	973	100.0

* 복수응답 3순위까지

자격증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잡지와 신문의 구독에 대한 요구도 많아 장서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신문과 잡지는 한번 구독하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병사들이 참여하는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희망도서 구입제도 등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도서관, 특히 인근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단체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장서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안을 도입하면 장서의 다양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사들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독서 시간의 확보와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독서지도와 함께 도서관 이용 홍보 그리고 교육과 상담이 군부대에서도 요구한다. 병사 일과표에서 독서시간을 명시하고 여가 시간에 독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 병사들이 독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후감경연대회 위주의 활동을 독서법 특강, 추천 도서제도, 독서 동아리 활동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병사들의 장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병영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대 중심에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습문고와 같은 개념으로 내부반 비치 도서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적절한 장서 구입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기증에 의존

한 장서개발로는 병영마다 각기 다른 병사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신간의 확보가 어렵다. 적절한 예산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도서구입비 증액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병영도서관이 민간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병영도서관 장서는 병사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정서함양과 지식향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대사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자료의 형태 면에서도 인쇄 자료를 비롯하여 시청각자료,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한 접근전략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자료수집에서 보존까지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공하는 정보 자원은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성자료의 범위에는 임무 수행 취미와 여가 선용, 교육과 자아개발, 지식함양 등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정보 자료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각종 연속간행물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고, 참고 정보원의 확보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부대 내 병사들의 독서 장려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병영도서관 수의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장서의 확충과 독서프로그램의 확대 그리

고 장서 예산 확보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군부대 내의 병영도서관을 확충하는 일이다. 또한 도서관 운영시에 희망도서, 장서 종류의 다양화, 장서량 증가 등의 병사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독서 장려를 위해 병영

도서관 내부에서는 체계적인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부대 내 독서 동아리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군부대 자체에서 병사들의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 2004. 『2004 국민 독서실태 조사』 한국출판연구소.
- 박정길. 2004. 한국인의 독서부진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원근. 2005. 『국민독서실태조사로 본 청소년 독서의 현주소』.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백진현. 2004.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섭. 2003.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방향. 『도서관』, 58(3): 77-102.
- 송승섭. 2004. 병영도서관 독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편) 『병영도서관 독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12월 국회 토론회 발제자료』, 3-16.
- 온만금. 2004. 군대복지의 사회적 평가. 『한국군사』, 18: 110-136.
- 이용훈. 2003. 2002년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도서관문화』, 44(1): 20-25.
- 이정수. 1965. 독서습성을 가지자: 군인과 사생활. 『해군』, 145: 22-24.
- 제정관. 2004. 장병 정신전력과 신세대 가치관. 『군사논단』, 39: 77-94.
- 조동성. 2004. 병영독서운동의 비전과 과제.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편) 『병영도서관 독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12월 국회 토론회 발제자료』 27-28.
- 차미경, 송승섭. 2005. 병영도서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85-306.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편집부. 2005. 2004년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도서정보 검색 이용 및 만족도 증가, 학교도서관 이용률 최고 기록. 『디지털도서관』, 37: 64-75.

к с і